

모든 가정에 사랑과 감사를!



5월 가정의 달 ... 4~5일 '어린이주일', 11~12일 '어버이주일'
13일 '2030 자녀맞춤전도집회', 18~19일 '교사주일', '입양위탁행사'

가정의 달 5월이다. 온누리교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모두에게 사랑과 행복, 감사를 선물하는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5월 5일(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서별(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파워웨이브)로 간식을 나눠준다. 부친온누리교회는 5월 4일(토) 본당에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한다. 5월 12일(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는 놀이기구(바이킹, 에어바운스, 회전그네, 기차 등)를 설치한다.

5월 11일(토)과 12일(주일)은 '어버이주일'이다.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5월 13일(월)에는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인생네컷'이 막 오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6시 50분부터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5월 19일(일)에는 '교사주일' 행사가 열린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서별로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5월 18일(토)과 19일(주일)에는 '입양위탁행사'가 열린다. 사회선교본부 제이홉사역팀(입양위탁커뮤니티)과 선한울타리사역팀(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역)에서 입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사역팀과 관련 기관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 홍하영 기자

5월 4~5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5월 4일(토)과 5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5월 4일 오전 5시부터 5월 5일 오후 10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주차장은 지정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어린이 3명 이상 카풀 차량이 대상이다. 5월 5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준영,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

5월 4~5일 '창립주일 감사예배'

영종온누리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주일 감사예배'를 5월 4일(토)과 5일(일) 영종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드린다. 장소는 영종온누리교회 3층 백향목홀이다. 5월 5일(일) 오후 2시에는 교회 창립 1주년 축하행사와 크루스 찬양콘서트가 열린다. 차세대대를 위한 에어바운스 설치와 푸드트럭 행사도 준비했다. 네팔의 오지인 저버히 마을(씨꾸람 씨우더리 목사) 교회 예배당 건축 지원을 위한 감사헌금도 봉헌한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23년 5월 7일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비전으로 내걸고 국내 11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관련기사 13면).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5월 25일까지 참가 신청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이 막을 올렸다. 5월 26일(주일)까지 이어진다.

달려라풍당 참가신청은 5월 25일(토)까지 달려라풍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에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기입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캠페인 기간에 활동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금액만큼 CGN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입금자명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 후원금 전액은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문의: 02-796-9800

서빙고 본당 앞 6m '보차혼용통로' 조성

이재훈 위임목사,
지난 29일 관계기관과 조정 합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통로 확보 문제가 관계기관들의 조정안 합의로 일정 부분 해결되게 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지난 4월 29일(월)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온누리교회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서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조정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6m 폭(신동아 건설 4m, 교회 2m)의 통로를 만들고, 성도들의 통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앞 울타리가 지금 자리에서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4m 이동하고, 자동차 교행을 위해 교회 부지 2m를 합쳐 6m에 대한 '보차혼용통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서빙고온누리교회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2020년 일몰제(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제도) 적용



으로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해제가 됨에 따라 온누리교회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교회와 신동아건설측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신동아건설이 통행을 막고, 진출입로에 울타리를 세우고, 신동아건설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온누리교회 성도 1만8백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출입로

를 확보하고, 장애인 성도 수백 명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폭 6미터의 진출입 도로 확보' 민원을 제기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도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하고,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도로 폐쇄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온누리교회, 용산구청, 신동아건설 등이 14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조정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만남이 그러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사역을 하던 가운데 성령님이 그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뜻밖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체험하는
'단순한 순종'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26절).

사실 이해하기 힘든 지시입니다.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사람을 만나기 힘든 광야의 길을 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빌립이 “그곳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보여준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단순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네가 광야 길로 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몇 시경에 누군가가 어느 방향에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순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신 말씀은 “광야의 길로 가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두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 노선표를 보듯이 이 역 다음에는 무슨 역이 있고, 종착역이 어느 역인지를 알 수 있도록, 노선표를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 주

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단순히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곧 다음 걸음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 모든 것을 알려 주지 아니하시고, 다음 걸음만 알려 주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나 성공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교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걸음의 단순한 순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빌립의 만남

하나님이 빌립을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 내용이 ‘일어나 정오쯤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정오에는 태양이 남쪽에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거기에 가야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시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가거나 더 늦게 간다면 만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타이밍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광야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관리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 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수단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불리는 나라는 당시 ‘아비시니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성경의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아비시니아 사이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렸는데, 모

세의 아내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함축이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호칭입니다. 로마의 ‘시이저’도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호칭입니다. 간다게는 당시 여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어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맡아보지 않았고, 세상일은 어머니, 여왕이 맡아보았는데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오늘날 재무부장관 같은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실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 볼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27절, 개역개정).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근처에 있는 나라 정부 관리가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당시에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질서 속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해서 개종한 이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완전한 개종은 아니었지만, 절기에도 참여하고, 율법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단순히 절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이 읽던 두루마리를 구입해서 마차에서 읽을 정도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근처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로 여행하며 절기에 참여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사본을 구해서 스스로 읽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한다!

빌립이 광야 길로 갔을 때 성령님이 “저

“복음 증거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님께 단순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 마차에 있는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라고 말하며 빌립에게 자기 마차에 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학위 과정을 해야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학위 과정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윌리엄 월버포스가 자신의 친구인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를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피트에게 당시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복음을 잘 전하고, 지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버포스가 크게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이자 수상이 로버트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 깨닫게 되리라 크게 기대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월버포스가 질문했을 때 윌리엄 피트 수상이 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지적으로 열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단순한 순종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에티오피아의 관리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고 내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33절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32~33절).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순종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은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야가 어린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했고, 열리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관리의 눈이 예수님을 들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눅 24:44).

‘모세의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분으로 말하면, 역사서도 선지서의 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시편>은 시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세 구분으로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문화적 내용까지 예수님을 풍유적으로 말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예언한 것도 있지만, ‘모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화적,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해야 할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해야 할 소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관리가 스스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물로 내려

갔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세례식이었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세례식이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인을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빌립은 평범한 유대인이었지만, 에티오피아인은 한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집트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가 후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의 평범한 한 시민이 당시 강대국의 장관에게 사회와 문화, 지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차이도 뛰어 넘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도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체험한 빌립과 같은 이들이 성령님께 단순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받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립이 주의 성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갔을 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도행전적 역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가정

가정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유산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회 기관이며, 교회이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말씀대로 부모가 살고,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가정이 소중하다.

나의 믿음의 멘토인 장인어른은 모태신앙으로 6.25 당시 황해도에서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이후 ‘이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셨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방화동)에 교회를 두 번 개척하시고, 장로로 은퇴하셨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장인어른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셨다. 이때는 사위가 방문해도 눈인사만 하시고는 성경 읽기 목표 분량을 끝낸 다음 반갑게 맞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동네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늦게 찾아온 사춘기로 시작된 영적 방황을 청년 시절에야 끝내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그 이후 신앙심이 돈독한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의 권유로 ‘BEDTS(예수전도단 직장인 제자훈련)’, ‘아버지학교’ 등 훈련을 받았다. 고민과 방황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바른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잠 22:6).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가정의 제일 목표가 되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읽으며 성장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영아부 예배 참석을 시작했다.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이들을 달래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기다려 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는 한 가지 약속만 지켜 달라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파워웨이브를 계속 다녔는데, 하나님이 세 자녀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제자양육을 받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봤더니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었고, 방학 때는 필사를 했

소 강의를 수강했다. <아바 일터 성경공부 시리즈(5권)>도 구매해서 ‘성경적 직업관’, ‘직업과 소명’ 등을 워크북으로 활용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아이들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한 만큼 인간이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를 통해 복을 주시며, 생육·번성·총만·정복·다스림(창 1:26-28)의 생육·문화 명령을 이행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마 19:4-6)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흔들림 없는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장인어른의 믿음의 유산이 세 자녀와 다음세대,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윤상우 집사
(강남공동체,
온누리세계관교회)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가정이 소중하다.”

교사도 했다. 특히 양재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들이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직접 경험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름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엢 6:4).

바라봄의 법칙을 기억하며 부모를 그대로 닮아 간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

며, 큐티 나눔을 하고 있었다.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를 통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의 흐름(상대주의, 과학주의, 율법주의, 우상주의, 해체주의)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학교 신앙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배들과 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음은 큰 축복이요, 행운이었다.

이제는 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OTT 풍당에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방선기목사, 직장사역연구

특별기고

자녀의 초월적 가치

농부들은 농작물과 동물을 키운다. 이는 식량이 필요한 모든 사회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다. 물론 산업화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구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굶어 죽게 된다. 특정 개인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 일은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많은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시민 공동의 책임이다. 옥수수나 소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게 아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지속하려면 많은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사실 대다수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사망하는 사람의 수와 같거나 더 많지 않으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의 현재 상황이다.

주요한 요인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관계에 관한 우리의 선택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개인적 선택이 미래에 아기와 태아,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의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 선택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의 개인

적 목표와 꿈에 도움이 될까?’를 묻는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결혼과 출산을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평가한다. 그 결론은 가족은 개인을 충족시키지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개인으로서의 목표와 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이스 페리 같은 작가들이 지적했듯이, 수천만 가구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맹목적인 비용편익 분석은 선진국의 많은 가정을 불임 상태로 만든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결

인구의 추세를 바꿀 수 없다. 인생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든 한 국가나 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선택은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매튜는 최근 <법과 자유>에 기고한 글에서 세속적 작가들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놓친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이들은 개인의 목표와 꿈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단

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 쾌락주의를 거침없이 추구하기 위해 ‘아이를 안 가질’ 자유에는 일부를 위한 개인적(모호한) 가치만 있다. 아이는 세속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아이는 물질적 이득과 개인적 성취를 넘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즉각적이고, 공동의 책임을 제시한다. 즉, 사회가 생존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이다. 세속 작가들이 엄청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꺼리는 이유는 그들의 신념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가치는 개인보다 중요하다. 어떤 가치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미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반영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기독교 신앙과 문화, 신학, 변증론 전문 강사),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업스트림 팟캐스트 호스트,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WORLD,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서밋 미니스트리 등에 정기 기고)

원문: breakpoint 논평(2024.02.27.)

“어떤 가치는 개인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미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반영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과는 명확하다. <뉴욕타임스>가 인정했듯이, 세계 인구는 금세기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뉴욕타임스>의 편집위원회는 특히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경력에 집중하는 페미니스트의 이상을 꺾는다면 누구도 이런 추세를 되돌릴 책임이 없다고 독자들을 안심시켰다.

“아이를 갖지 않거나 작은 가정을 꾸리기로 한 건 실수가 아니다. 아무도 혼자서 전 세계

순한 자기표현의 도구가 아니다.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을 향한 관대한 성향’을 대표하는 사회에 대한 선물이다. 자녀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누구나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래 매튜의 결론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일부만 하는 일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해요!”

친구들, 토요일 오후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간다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연습하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에요.

‘세라핌(Seraphim)’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는 그 이름처럼 천사 같은 친구들이 모여있답니다. 이유민(고2), 김혜윤(중3), 김예찬(중2) 친구가 세라핌합창단을 소개해줬어요.

유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서 정기연주회나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 좋고, 시골 학교나 교도소에 가서 특순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주말에 나와서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도 많



이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친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혜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을 시작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 좋은 점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세대 부서에서 만나는 친구들 말고도 좋은 언니, 오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찬: 초등학교때부터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을 시작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는

찬양이 많지 않았는데,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을 하면서 아는 찬양이 많아져서 좋아요. 길을 가다가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 찬양을 즐기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2002년 창단했어요. 현재 단원은 28명이고,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초등 23명, 중고등 5명). 온누리세라핌합창단에서는 정기연주회와 교회 특순, 초청 연주 등을 하고, 해외 선교지에서 찬양과 핸드벨 연주로 선교를 합니다. 핸드벨 연주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국내 어린이 합창단 중에서 전문적으로 핸드벨 연주를 하는 팀은 온누리세라핌합창단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핸드벨 연주로 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지하 1층)에서 연습해요.

문의: 010-8285-6435



69. 마땅히 행할 길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청소년 자녀를 위한 성교육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킴이 대표)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연애에 대한 적절한 시기와 규칙을 대화로 세워야 한다. 성적인 욕구와 호기심이 왕성하고, 충동적인 특성이 있는 청소년 시기에 연애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게 이 시기의 좋은 성교육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의 확률, 헤어졌을 때 감정적 충격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진정한 연애는 몸과 마음이 준비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둘째,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멘토링을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들의 독립에 대한 욕구를 인정해줘야 한다. 부모는 이제 자녀가 떠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무조건 독립만을 주장한다면 독립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다.

“언젠가 너는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흘

로서기를 해야 할 시간이 올 거야. 네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부모의 충고와 판단이 필요해.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네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사춘기에 독립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독립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올바르게 키우면 자녀가 장성했을 때 부모 옆에서 돕는 동역자로 자랄 수 있다.

셋째, 남녀의 차이는 구별의 문제이지, 차별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셨다. 남자면 XY, 여자면 XX로 몸의 세포마다 하나님이 성염색체를 새겨두셨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관계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공립학교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진화론, 도덕적 상대주의, 성평등 교육, 젠더 교육 등이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의 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으로는 성이 바뀌지 않음을 알려줘야 한다.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통해서 외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성염색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호르몬제 오용으로 혈관 질환, 불안장애, 유방암, 자궁암, 불임, 고혈압 등 많은 부작용

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

넷째, 순결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녀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순결은 결혼 전에도 중요하고, 결혼 후에는 더 중요하다. 순결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에 자녀를 데리고 가면 좋다. 결혼식을 보면서 자녀에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물어보라. 만약 신랑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들에게 결혼식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게 하라. 딸이 커서 순결한 삶을 살고, 순결을 상징하는 흰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올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실지 그때를 상상하며 대화를 해보라. 순결을 지키고, 서로 존중해서, 순결한 남녀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짜릿하고 아름다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 결혼식에 참여한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많은 성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시절의 성적 행동은 어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요즘 자녀들은 SNS에 올렸던 방탕한 사진을 언젠가 지우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자신이 올렸던 모든 이미지나 내용들은 영원

히 지울 수 없고, 미래에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쉽게 빠진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천천히 음란물에 빠진 것처럼, 음란물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란물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영혼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낸다.

여섯째, 거룩함의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죄와 싸우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룩이다.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거룩의 훈련’이다. 거룩은 성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인터넷을 하다가 포르노 같은 유해한 영상이나 난잡한 이미지를 접했을 때 바로 컴퓨터를 끄고 그 자리를 뜨는 게 거룩의 훈련이다. 유혹이 오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의 훈련이다.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의 훈련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5편 청소년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달려라풍당!”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이 시작됐다. 지난 4월 27일(토)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교회와 CGN이 함께 주최하는 ‘달려라풍당’이 올해로 4회째인데,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 올해는 참가할수록 행복해지는 하늘의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타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 참가했다.

/ 김현준, 홍하영 기자



지난 4월 27일 달려라풍당에 참가한 성도들.

올해 달려라풍당은 더 특별하다.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가족들을 보는 것도 은혜다.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달려라풍당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동빙고 근린공원에 속속 모였다. 오전 10시 15분, 달려라풍당 개막을 알리는 ‘스페셜 데이’ 행사가 시작됐다. 개그맨 김기리가 MC를 맡았고, 하다쉬뮤직, 뮤지컬 배우 선우가 게스트로 출연해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개그우먼 김혜선은 준비운동을 인도했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이 동작을 따라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달려라풍당!”을 외치며 참가자들이 그 아름다운 걸음을 시작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도 스페셜데이 행사가 열렸다. 개그맨 이정규가 사회를 보고, 스포츠 트레이너 정주호가 준비운동을 인도했다.

이날 스페셜데이 참가자들은 두 가지 운동에

참가했다. 첫 번째 운동은 걷기나 달리기다.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한강 거북선나루터를 돌아오는 4km 코스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출발해 영동1, 2교를 거쳐 돌아오는 3.8km 코스다. 두 번째 운동은 자전거 타기다.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양재온누리교회,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동빙고 근린공원을 가는 코스다. 기자는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한강 거북선나루터를 돌아오는 코스에 참가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한강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만났다. 오형석, 박인진 부부(마포공동체)다. 부부는 올해 달려라풍당에 처음 참가했다. 그들은 CGN 후원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달려라풍당에도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주로 집에서 지낼 때 기록 OTT ‘풍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갯돈’을 좋아합니다. 가정과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 제작 및 허입을

후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좋아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거북선나루터로 향하는 길에서 어느 모녀를 만났다. 박자현 성도(서대문공동체)와 딸 조빛나 학생(초등학교 1학년)이다. 온 가족이 달려라풍당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와 둘째 아이는 자전거를 선택했고, 박자현 성도와 딸 조빛나 학생은 걷기를 선택했다. 박자현 성도 가정은 달려라풍당 두 번째 참가했다. 온 가족이 달려라풍당에 참가하는 이유가 있다.

“CGN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가 셋이라 그 필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달려라풍당에 참가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최고 거리 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걸었던 어느새 반환점이 눈앞에 보였다. 길목 사이사이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을 돕는 CGN 직

원들이 보였다. 진행 방향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있었다. 반환점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인증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는 CGN 직원 이선우 형제를 만났다. 더운 날씨에 힘들 법도 한데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가득했다.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온 가족이 함께 걷고 뛰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달려라풍당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화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무리가 함께 걷고 있었다. 얼른 쫓아가 말을 걸었다. 용산공동체 성도들이었다. 김충희 안수집사(용산공동체)가 스페셜데이 참가 소감을 밝혔다.

“순식구들을 화사한 태양 밑에서 만나니까 훨씬 좋습니다. 운동과 교제, CGN 후원까지 하니가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공전 세계로 향하는 좋은 전도 도구 CGN을 후원하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세대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달려라풍당’에 참가해야 한다. 달려라풍당은 오는 5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까지 신청하고 참여하면 된다.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캠핑, 게임 등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참가신청서에 기록하면 된다. 후원액은 km당 1백 원 이상이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달려라풍당!”을 외치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할아버지, 고모, 손녀가 함께

“‘달려라풍당’이 시작된 첫해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아버지, 고모, 손녀 3대가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달려라풍당’에 함께 참가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달려라풍당’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려라풍당’에 참가하는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발걸음이 다음세대를 위해 한 땀 한 땀 수놓아지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거리를 모두 채우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강찬우 성도, 강보영 성도, 강민서 어린이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생일파티도 마다하고 ‘할머니와 함께 ‘달려라풍당’에 참가하고 싶다’는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을 텐데, 할머니와 함께 달려라풍당에 참가한 손녀가 참 귀하고 예쁩니다.

저는 늘 가정에서 자녀와 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달려라풍당’이 더욱 특별합니다. 손녀와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의미도 큼니다.

‘달려라풍당’이 가정과 다음세대를 위한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세대에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정한 분량을 완수하겠습니다.”



김종영 권사, 윤서영 어린이

아빠, 엄마, 아들이 함께!

“지난해에 아내, 아들과 함께 ‘달려라풍당’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너무 울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올해는 꼭 참가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걷는 게 가능해서 신청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고, ‘올해는 꼭 가족이 함께 완주하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달려라풍당’의 취지가 참 좋습니다. 다음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캠페인이라서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록 OTT ‘풍당’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 OTT ‘풍당’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손범준 성도, 이경진 성도, 손로이 어린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어르신 섬기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과 독거노인들의 우정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정(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이다. 그들은 때마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집수리도 해준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꿈꿨던 어르신들의 마음이 봄날 눈 녹듯 녹아내렸다. 지금은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과 독거노인들의 뜨거운 우정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어르신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청년들.
◀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

‘박은유, 이지영, 이희정, 김차영, 김현수, 김태현, 진병수, 공혜진, 김호영, 황명진, 정다영, 방유석, 노창우, 강원조’

독거노인들과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의 이름이다. 청년과 노인이라는 단어 옆에 ‘우정’이라는 말이 써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솔직히 굉장히 어색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세대 간 갈등이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영국 킹스 칼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갈등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빈부격차와 성별, 세대 갈등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 40%대인데, 우리나라는 80%에 달할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 세대갈등이 세계 최고라고 공인받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인데, 청년과 노인의 우정이라니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세대갈등을 넘어서게 만들었을까? 청년과 노인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청년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연결되면 ...**

브릿지33+ 이웃사랑팀이 결성된 건 4년 전이다. 전에는 브릿지33+공동체와 산마루교회 성도들(노숙인 포함)이 함께 서울역 청소를 했다.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역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멈춰 섰다. 아쉬운 마음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역을 찾고 있었는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독거노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홀로 지

내며 외로움과 가난과 싸우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브릿지33+공동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브릿지33+공동체는 양재온누리교회 소속 청장년 공동체인데, 그들에게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르신들을 만나러 기꺼이 매월 서빙고동을 찾기로 했다. 마음이 맞는 청년 6명이 모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브릿지33+ 이웃사랑팀의 태동이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은 매월 지역 상품권을 들고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간다. 분기별로는 생필품과 반찬 등이 담긴 ‘사랑의 상자’를 들고 찾아간다. 추수감사절 사르밈프로젝트에서 쌀 나눔을 할 때도 있다. 매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사역을 브릿지33+ 이웃사랑팀이 만들어진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그동안 팀원이 늘어서 현재 14명이 동역하고 있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이 만나는 어르신 대부분 홀로 지내신다. 무엇보다 정(情)이 고된 분들인데, 웬일인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셨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이 찾아갔을 때도 몇 번 오다 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곁을 내어주지 않으셨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정성을 쏟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틈날 때마다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어르신들의 생일 잔치를 열어드리기도 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4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청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일까?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여셨다. 청년들이 처음 찾아갔을 때는 “상품권만 주고 갈 거면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하던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 안부를 묻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일어서는 청년들에게 “나랑 같이 사진 찍고 가”라고 말할 정도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가 쉽지 않지만, 청년들의

전화만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청년들이 집에 오는 날에는 손자들이 집에 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장하고 맞아주셨다.

한 어르신은 청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90세, 몸이 많이 아픈 어르신을 위해 청년들이 찾아갈 때마다 따뜻한 국수나 부드러운 죽 등을 챙겨갔다. 그 어르신의 식사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청년들의 사랑이 그 어르신의 마음 밭을 옥토(沃土)로 만들었다. 복음의 씨앗이 금세 싹났다. 그 어르신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쁘게 고백하면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의 사랑과 섬김 덕분에 어르신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박은유 자매(브릿지33+ 이웃사랑팀장)가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뜨거운 우정을 쌓은 비결을 소개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면 나이를 떠나 정(情)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애뜻하고, 그분들께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어르신들도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십니다.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일을!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은 매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는 있지만 웬지 모를 아쉬움이 있었다. 어르신들 댁에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삐걱거리며 제대

로 닫히지 않는 현관문,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 타일이 깨지고 곰팡이 핀 화장실, 다 벗겨진 벽지, 얼음장 같은 바닥 등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그것을 내내 마음에 두고 있던 몇몇 자매들이 어르신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방유석, 김태현, 강원조, 황명진 형제를 보내주셨다.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인데, 안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팀원 대부분 자매들이라 가구나 장판을 교체하고, 수도관과 전기 배선을 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귀한 형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이 꿈만 꾸던 일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어르신들 댁을 수리할 수 있었다. 고장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화장실 환풍기를 고치고, 전등 스위치 배선 정리와 전등 교체를 해드렸다. 온수가 안 나와서 제대로 씻을 수 없던 어르신을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해드렸다. 안방 전등 전기 점검, 현관문 닫힘 조절기 설치 및 페인트칠, 주방 양념통 선반 설치, 청소 및 물건 정리, 모기장 교체, 커튼 달기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서 심부름도 하고 있다.

시간과 정성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어르신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뜨거운 우정이 쌓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브릿지33+ 이웃사랑팀 청년들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 계속 이어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도움과 동역자가 필요하다.

문의: 010-2024-4220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환경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



강종도 장로
(OCC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 담당장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가속은 급격한 온도 상승과 이상고온, 해수면 상승 등 많은 기후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과학적 연구자료와 미디어를 통해 매일 접하고 있다. 이와 다른

주장으로 태양의 근접 주기설(태양이 주기별로 지구와 가까워져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냥 놔두고 현재의 환경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분명 기후 위기를 더 빠르게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계속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창조질서 회복에 가치를 둔 신앙과도 맞지 않는다. 빠른 인류의 개인주의와 함께 일어나는 도시화와 공업화를 지금 환경의 큰 변화를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느끼고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왜곡하는 일도 기독교인이라면 반대해야 한다. 작금의 환경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신앙으로 맞서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인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0)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불과 50~60년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재 플라스틱은 철강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일환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전개했다. 모든 성도에게 ‘환경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운동을 했다. 이 운동은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이 한번 생산돼 다시 생분해되기까지 보통 300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이 가혹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미 발생된 플라스틱이 온 지면과 해수에 쓰레기로 잘게 잘려 퍼졌다는 것이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이 온 땅과 바다에 퍼져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마치 프랑크톤과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창조질서 회복 본연의 자세요, 기독교인의 본 모습이다.”

있다.

1974년(1차), 1989년(2차) 진행된 로잔대회에서 발행한 로잔문서 서문에는 지구 환경위기와 생태, 기후변화를 언급하면서 무절제한으로 치닫는 인류에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 붙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we love GOD's world).

우리의 니스웨, 하나님의 피조세계

훼손된 피조물을 회복시키려면 막대한 비용과 대가를 더 치러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시간은 정상상을 비정상상으로 만드는 시간보다 곱절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거대 담론으로 여겨서 이미 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고 포기한다면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니스웨를 회개하도록 말씀하실 때, 요나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이기적이며 연약한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 4:10~11, 개역개정).

환경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다. 도시화가 지속해 환경문제가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한다고 해서 도시화를 정리하고 다시 1차 산업으로 회

귀할 수는 없다.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

요나는 지금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도록 명령받았다. 기독교인의 니스웨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깨어 도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탄소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막대한 돈을 쏟고 있다. 구글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은 얼마 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단백질을 AI(인공지능)를 통해 찾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변한다면 잘못된 가치가 바로 잡힐 것이고, 다양한 오류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최근 패키지 시장에 환경을 위한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 플라스틱백(비닐)이 종이백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환경 보호를 위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값싼 비닐백 대치용으로 값비싼 종이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캠페인이 교회를 넘어 사회와 기업에 편안하게 문제의식이 생기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문제에 기독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누리신문>, CGN 같은 기독교 언

론들이 환경문제를 다루고,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며,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비례한다.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등)를 줄여 온실효과를 조금씩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산림을 훼손하는 종이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E-book(전자책)이나 Webzine(웹으로 발행되는 잡지) 등을 활용해서 WEB-base로 향하도록 하면 어떨까? 종이책은 소장 가치로 이해하고, 전자책을 생활화하면 좋겠다. 목축업에도 메탄 배출 줄이는 노력,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해양과 육지 환경에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상적인 기후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지속하는 자연재해, 이상기후와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산림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종의 멸종 등), 물 부족, 식량 부족, 인간 및 동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구호만 있고,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지향적인 나라에서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제조업 중심 산업을 가진 국내 산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비취 볼 때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취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신앙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신앙인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올해 온누리교회가 도전했던 ‘바이바이 플라스틱’ 같은 환경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생활하면서 전등 일찍 소등하기,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 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물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개인적 실천을 지속하면 된다. 교회 내 환경 캠페인과 성도들의 실천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할 것이다. 개인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하고, 기업도 변하게 될 것이다. 변화를 지속하면 정부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다른 많은 도움을 줘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질서 회복 본연의 자세요, 기독교인의 진짜 본 모습이다.

마무리를 준비하는 노년과 이를 돕는 교회

‘엔딩 노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하여



김영석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강촌공동체)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2015~2019년) 최빈사망연령(사망이 가장 많은 나이)이 남성은 85세, 여성은 90세다. 즉 통계적으로 볼 때 남성은 85세, 여성은 90세에 죽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고, 이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발달심리학자 에릭슨(E. Erikson)은 한 인간이 건전한 정체성(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안정적 견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인생의 시기마다 주어진 삶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인생을 8개 시기로 나누면서 시기마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제시했다.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인생의 시기마다 주어진 삶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8단계)는 “나는 내 삶을 통해 의미와 만족을 얻었는가?”라는 삶의 과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년기 삶의 과제의 긍정적 특성으로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을, 부정적 특성으로 ‘절망감(despair)’을 제시했다.

노년기에 주어진 삶의 과제의 긍정적 특성인 ‘자아통합감’은 현재 삶에 완벽하게 만족함으로 더는 바랄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이상적 삶의 특성을 의미한다. 반대로 노년기의 삶의 과제의 부정적 특성인 ‘절망감’은 현재 삶에 대한 완전한 후회 속에서 지금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자신과 타인을 원망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년기에 주어진 삶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아통합감’과 ‘절망감’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만약 한 노인이 에릭슨이 말한 ‘자아통합감’만을 가진다면 이미 자신이 이룩한 것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더는 새롭게 추구할 삶의 목적도 없고,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도 없는 불행한 상태일 것이다. 또한 에릭슨이 말한 ‘절망감’만 가진 노인이라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노년기를 원망하며 후회 속에서 인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행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기에 건강한 심리상태를 가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에릭슨은 노년기에 주어진 삶의 과제를 잘 해결했을 때 ‘자기 죽음에 대해 초연한 태도’(에릭슨은 이를 ‘지혜’라고 지칭했다)라는 삶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년기를 잘 준비하는 방법

그렇다면 에릭슨이 말한 노년기 삶의 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어떻게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 방법이 ‘인생 회고(remiscence)’다. 우리는 흔히 인생 회고를 저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전기(傳記)를 작성하는 정도의 거창한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인생 회고 역시 기록으로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 회고 방법에는 일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벌어진 주요 사건과 소감을 기록하는 ‘연대기적 회

식의 엔딩 노트를 판매하고 있다.

죽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단계

엔딩 노트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작성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적으로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폐기능설(心肺機能說)’을 채택하고 있다(일부 국가들은 뇌사설을 채택하고 있다). 심폐기능설에 따르면, 한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 운동이 영구히 정지되었다고 여겨질 때 이를 의학적 죽음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심폐기능설을 채택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응급환자들에게 활용되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기술이 곧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 또는 뇌사 상태

간의 동일한 진술이 있으면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행위의 중지지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미리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거나 말기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사용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작성하는 문서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예: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010년대 초·중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기독교계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이 법률이 안락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2023년 12월 7일 “‘안락사와 다를 바 없다더니’ 교회 참여 늘어나는 이 제도는?”이라는 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 관계자가 교회를 방문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본인들의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을 돕고 있다. 과거에는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기독교적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견해에서 벗어나 오히려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는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후 5:1).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다.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단계라고 인식한다면, 엔딩 노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을 통해 교회 내 노인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초고령사회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죽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단계로 인식한다면

엔딩 노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는 것이 초고령사회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고’와 주요 주제어를 중심으로 사건과 소감을 기록하는 ‘주제 중심적 회고’ 방식이 있다. 연대기적 회고 방식은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쓰고 읽는데 지루할 수 있어서 주제 중심적 회고 방식이 노인들에게 추천된다. 인생 회고를 돕는 주제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억에 남는 사람들’, ‘앞으로 남은 인생 계획’, ‘주변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이 있다.

주제 중심적 회고를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엔딩 노트(ending note)’ 작성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노인들 사이에서 엔딩 노트 작성성이 유행했다. 엔딩 노트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회고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엔딩 노트에는 앞에서 말한 주제 중심적 인생 회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과 함께 직접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례 방식 정하기, 유품 처리 방법, 유산 처리 방법 등을 적는 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엔딩 노트를 적고, 노트에 적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종활(終活, 인생의 끝을 위한 활동)’이라고 부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중 서점에 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다양한 양

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사용되면서 치료 가능성 없이 죽음에 이르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회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멈추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살인 방조행위로 여겨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에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대법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환자가 연명의료행위(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중지지에 대해 사전에 남긴 지시가 있었거나 이와 관련한 가족 간의 동일한 진술이 있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명의료 행위중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고, 최종적으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한 회생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견해가 확인되거나 이에 대한 가족

맛있는 말씀 해설

“...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다. 나의 뜻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혹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라도 정말 하나님이 모두 거절하시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기도와 관련해 <시편> 기자는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언급하고 있다(시 37:4-5).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고, 거룩한 사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할 때 상대방의 뜻은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도의 특권에서 제외된 자들도 있다. 바로 구원을 지식으로 착각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

은 지식만 가지면 구원을 얻기에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부도덕하게 살았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면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문맥상 16~17절로 보이는데, 사망에 이르

는 의미로서 헬라이어 문법의 중간태를 의미한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동적으로 기도 참여하지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수동적으로 응답받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기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진다. 신앙 양심상 성도들은 그러한 결정은 피하는 게 지혜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모범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성도의 겸손한 신앙고백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은 별의 수효까지 세시고 아시는 분이시다(시 147:4-5).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다.

1이라는 문이 닫히면 2가 있고, 2라는 문이 닫히면 3이라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된다.”

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리킨다. 사망에 이르는 자란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에 속한 자를 말한다. 그들은 배교하고, 이미 진리를 떠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죄를 지어도 십자가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4절의 헬라이어 ‘아이토메다’는 ‘구하라’는

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라는 절대주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그 결과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사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할까? 비록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잘못된 동기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잘못된 동기와 욕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들

5월 6~12일

<열왕기상> 13:25~16:14



목상포인트 1:

은혜를 잇은 마음에는 아집과 죄악이 뿌리내리기 쉽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다.

권력 유지와 안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자.

▶ 늙은 선지자(예언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 시체를 자기 묘실에 장사한다. 늙은 선지자는 그가 전한 벤엘 제단과 사마리아 산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다. 아히야는 하나님이 일러 주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아비야가 죽을 거라고 전한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 아이가 죽는다.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한 뒤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된다.

목상포인트 2: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왕조에도 신실하지 못한 왕이 많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유다 왕조를 지켜 주신다. 왕들의 신앙이 위기 때 명백히 드러난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와 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때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하자.

▶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다.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 간다.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야가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잇게 하신다.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리며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아세라상을 만든 할머니 마야가를 태후 자리에서 내쫓을 만큼 신앙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오자 아람의 벤하닷에게 성전의 은금을 바치며 도움을 청한다. 아사는 늘그막에 발에 병이 들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밋이 왕이 된다.

목상포인트 3:

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잦은 반란으로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뀐다. 하나님은 말씀을 저버린 자의 집안을 반란을 통해 심판하신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시므리는 바아사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다. 반란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답은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 바아사가 모반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됨으로써 여로보암 가문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철저히 진멸된다.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바아사에게도 심판을 예고하신다. 바아사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죄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바아사 집안은 시므리의 모반으로 진멸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여로보암처럼 죄를 심고 확산하는 이의 가문은 철저히 망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가정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피자. ▶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 솔로몬 시대에 축적한 보물과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간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 아사는 우상숭배하는 할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내쫓는 신앙 개혁을 단행했다. 내가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단호히 처리할 일이 있는지 돌아보자. ▶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자. ▶ 하나님은 평안과 환난의 주권자시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돌아키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왈리드 형제를 위해서!

안산M센터 왈리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왈리드 형제는 난민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한국에 온 지 9년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낼 때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왈리드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왈리드 형제는 현재 아내와 이별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산M센터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한 달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안산M센터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중입니다. 왈리드 형제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

왈리드 형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서 세례도 받도록 기도해주시고. 매일 술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도해주시고. 안산에 술주정뱅이로 소문이 나 있던 왈리드 형제가 예수님으로 삶이 변화되도록, 주변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고.

/ 김예달 전도사(안산M센터)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 힘들어하는 이 세상 모든 부부를 위해서 ‘김숙경 사랑연구소’ 김숙경 소장이 신간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를 펴냈다.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이 담겨있다. 김숙경 소장은 15년 이상 ‘가족치료사’로 사역하고 있고, <온누리신문>에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다음은 김숙경 소장과의 일문일답.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더 사랑하고픈 이 세상 모든 부부를 위하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펴낸 김숙경 소장



신간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가 화제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메달라 버리고, 시들어 버린 부부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다시 사랑을 꽃피우고, 관계 회복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부부 만족도 검사를 통해 부부의 현재를 알아 어느 영역에 성장이 필요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부부 애착 검사를 통해 서로의 애착유형을 알고 안정된 관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즐거움, 성적 즐거움, 영적 즐거움 등을 부부가 함께 누리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간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열심히 준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부족합니다. 또한 크리스천 부부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 상황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부부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을 주고받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부 생활 혹은 결혼 생활을 주제로 강의하고, 부부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부가 친밀해지는 방법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잖이 놀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부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부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교회에도 제자 훈련이나 신앙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부부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독자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를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에서는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세분화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 부부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부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얻도록 돕는 책이기도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부부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유사한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독자들이 있습니까?

“제 소망은 이 세상 모든 부부가 이 책을 필독서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픈 분들, 건강한 부부관계를 하고픈 분들, 특히 사랑이 식었다고 여기는 부부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부부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읽

으면서 날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매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넉크리스천이 읽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성장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자녀들에게는 많은 투자를 하는데, 부부관계에는 투자를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건강하고 친밀해야 자녀들에게 그 정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과 소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언어로 쓴 책이기에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부부들이 친밀감을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날마다 건강한 부부, 친밀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김숙경 저 | 두란노 | 15,000원

추천의 글

‘사랑’, 이 단어의 익숙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은 참 쉽다’는 태도를 갖게 했다. 사랑을 쉽게만 생각한 우리의 교만과 사랑에 대한 무지가 개인의 삶과 부부의 관계, 가정과 사회, 온 나라를 병들게 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몰랐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단지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 이미 오랫동안 사랑을 해왔고, 사랑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랑을 찾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 이지웅 목사(더바이블미니스트리 대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는 것만큼이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혼 생활은 더욱 그렇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칫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비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분에게 의지한다면 하나

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르심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립될 수도 있다. 김숙경 소장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랑과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대안을 알려준다. 성경적이면서도 사역 현장에서 쌓인 풍부한 처방 가이드는 반드시 부부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성숙하고 성화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이 책에는 오랜 시간 부부들의 속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 가도록 카운슬링해 오신 김숙경 소장의 전문성이 담겨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 온 부부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함께 담겨있다. 이 책을 통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몰라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부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로 상처 주고 괴로워하는 부부,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휘둘리는 부부들에게 꼭 맞는 진단과 처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해서 아파하는 당신이, 사랑해서 더욱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 주영훈 작곡가(방송인)



사진은 서빙고 이웃사랑팀.

“사랑의 상자 배달이요!”

이웃사랑팀, 독거노인 110가구에 생필품 전달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지난 4월 28일(일)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10가구에 ‘사랑의 상자’를 전달했다. 사랑의 상자에는 김치, 쌀, 햇반, 라면, 반찬 등 먹거리 및 생필품이 들어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독거노인 방문 봉사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다. 지역상품권, 사랑의 상자 전달, 식사 섬김, 집수리 등을 한다.

박순길 장로(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 담당)는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독거노인들의 진짜 이웃이 되기 위해 매월 찾아가 안부를 묻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성도들

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오는 5월 26일(주일)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개최한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다. 1인당 1만 5천 원을 지원한다. 문의: 010-9802-239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참가자 모집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5월 21일(화)부터 6월 25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하기를 원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078-3271

행복한 시니어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행복한 시니어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금)과 18일(토) 진새골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사역장로 부부다. 25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전화(010-5233-2995)로 하면 된다.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동해 단구 해변 등지를 돌아보며 창조신앙을 공부한다. 참가신청은 5월 1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10-7636-6305

온누리도서관 이전 개관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온누리도서관이 5월 5일(일) 이전 개관했다.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신앙 서적과 DVD, 학습 자료 등이 구비되어 있다.

온누리도서관은 서빙고온누리교

회 신관 403호에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으로 이전했다.

한호성 팀장(온누리도서관)은 “새롭게 단장한 온누리도서관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책을 읽고, 꿈을 꾸며, 신앙을 키워나가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110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모로코 지진 피해 지역 재난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 입은 모로코 이재민 450가정에 1차 긴급구호 활동에 이어 구호품을 전달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모로코 지진 피해가 심각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만성질환자 진료, 어린이 정서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모로코에서 지속적인 의료 및 아동 교육을 지원하고 복구 활동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02-2271-2248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당 12만 원 (부부가 등록하면 20만 원, 청소년 추가 1인당 8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2

010-6476-0524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선교집회 ‘Acts 투게더’

5월 매주 목 저녁 7시 20분 서빙고 비전홀

2000선교본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특별선교집회(목요선교집회)를 개최한다. ‘Acts 투게더’를 주제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특별선교집회에서는 5월 9일 강부호 목사 ‘성령이 임하시면’ (행 1:8), 16일 김창옥 전도사 ‘변화시키는 증인’ (롬 12:1~2), 23일 도육환 목사 ‘큰 교회를 꿈꿉니다’ (엢 1:20

~23), 30일 김홍주 목사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의 소망, 복음’ (딤후 3:1~17)을 주제로 설교한다.

목요선교집회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집회다. 이번 ‘Acts 투게더’ 특별집회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집중한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온누리교회가 지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됐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4월 비전헌금 5억5천만 원을 장로회신학대학교에 후원했다.

김운용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위해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기도와 성원을 보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면서 “온누리교회와 본 대학



온누리교회가 지난해 4월 비전헌금으로 지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됐다.

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Love Sonata

효고 기·도·제·목

- 5월 5일(주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러브소나타 ‘효고’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과 갈등, 다툼이 멈추게 하소서.
- 5월 6일(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건강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 5월 7일(화) ·참가자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 5월 8일(수) ·효고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러브소나타를 홍보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쁨과 헌신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 5월 9일(목) ·CGN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 5월 10일(금) ·러브소나타 스태프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전의 습관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 5월 11일(토) ·효고의 청년들과 다음세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소서.

청춘클래스 8기 참가자 모집

5월 19일까지 QR코드로 신청

청춘클래스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5일(토)과 22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열린다. 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연애하고 싶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다. 5월 19일(일)까지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다. 회비는 7만 원 (식식 포함).

청춘클래스 8기에서는 1주차 ‘크

리스천 연애 노하우’를 주제로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 대학청년본부장)가 강의한다. 2주차에는 김복유 전도사의 간증 및 콘서트가 열린다. 6월 20일(목) 오후 9시에는 개그맨 조래훈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권사칼럼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정문희 권사
(송파B공동체)

‘창조과학 신앙스쿨’을 수료하면서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이 시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창조론을 진리로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았다.

지구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생물학 법칙이 있다. 첫 번째 법칙은 ‘생명은 생명으로 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생명체는 종류마다 고유한 조상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은 ‘같은 종류는 항상 같은 종류만을 낳는다’는 유전법칙이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공통 조상에서부터 변이의 축적과 자연의 선택으로 새로운 종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랜 연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반하는 수 많은 자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수억, 수천만 년 이상 오래되었다는 공통 화석에 단백질, 연부 조직, 근육, 적혈구와 같은 유기물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공통들이 멸종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렇듯 진화론에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도 어떻게든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세기> 1-3장을 비유적이거나 풍유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부인한다. 나아가서 지구상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진화론적 결론임을 임의로 도출한다. 즉, 방향

성 없는 무작위적인 변이와 자연의 선택으로 생명이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창조를 이루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 의도와 목적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둘째,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 인류에게서 육적인 몸을 받아 태어난 거라고 주장한다. 셋째, 선행인류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고 주장하며,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로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넷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은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식물, 동물, 사람이 지구에 등장한 뒤에도 새로운 생물의 종류가 계속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세계의 생존 환경이 본래에도 지금과 같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공부하며 순간순간 공허함을 느꼈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이 시대 과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적, 유신진화론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며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사역칼럼

또 다른 씨앗 ‘이음한국어교실’

고원규 선교사
(온누리M센터)

한국 학교가 변하고 있다. 한국 학생 전체 숫자가 한 세대 만에 41% 감소했다. 반면 한국 내 다문화 학생 수는 10년 사이 3.6배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이 18만 1178명에 달한다. 앞으로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 명확하다. 반면 우리나라 출생율은 0.6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 환경에서 한국의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해외의 경우 대체로 이민 2세대 이후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인종이 다르기에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사회적 분노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사회에 어떻게 분출하는지를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러 사회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한국 사회가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을까? 단지 나그네로 한국에 온 이주민을 섬기는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에 더해 필연적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 이주 배경 학생들과 다문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의 나라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줄 기회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온누리M센터는 2005년 설립부터 이주 배경의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일에는 차세대 예배, 평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온누리글로벌 아카데미, 레인보우 스쿨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

램을 통해서 도왔다. 그 덕분에 7개가 넘는 언어권 아이들이 온누리M센터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돌봤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귀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지난해 정부 정책의 변화(외국인 수련기능 인력(E-7-4) 비자 확대)가 이주민들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학교로 유입되는 이주 배경 학생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문화 아이들과 다르고, 미리 한국어를 준비하고 오는 유학생과도 다르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

안산시 교육청에서 그들을 위해 한국어공유 학교 ‘이음한국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위탁형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누리M센터가 그동안 안산시와 교육청 등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감당하게 되었다. 이 위탁형 대안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라 믿는다. 이 학교는 다문화 어린이들과 진정한 소통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주민선교는 온누리M센터에서 다양한 변주를 경험해 왔다. 금호사역에서 예배사역과 선교, 그리고 역파송 등의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말이다. 이제 한국 사회 변화와 함께 이주민 선교의 또 다른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과 형제, 한 교회의 연합된 지체로 여겨야 한다. ‘이음한국어교실’이 그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기도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문의: 010-9418-1910

신앙에세이

도육환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시작된 영종온누리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게 되었다. 교회 창립과 함께 입당한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신 귀한 성도들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해 온 지난 1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전영한 회장님(하남주식회사)과 가족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신으로 인해 선물처럼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모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영종도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세워

질 수 있었다.

영종온누리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인근 도심의 상가를 임대해서 ‘하늘을 향한 새로운 향해’를 기치로 내걸고, 개척예배를 드렸다. 7개월 동안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입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지난해 5월 첫 주일 입당과 함께 창립예배를 드렸다. 대부분 성도들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라 모 든 것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했다. 기쁨 부으심 이 있는 예배를 추구하고, 새가족반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김포와 부천, 서빙고에서 먼 길을 즐거이 달려와 양육을 도와주신 성도들에 힘입어 일대일제자 양육의 뼈대를 세웠다. 하반기부터는 첫 순장 스쿨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웠고, 몇몇 사역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 팀을 조직하게 되었다.

하늘을 향한 항해는 계속된다!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기를 낳듯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이 있었기에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모든 영성과 비전을 영적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거저 받은 복이 많은 공동체다. 당연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고, 선례를 찾기 힘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거저 받았으며, 임상으로 검증된 38년 온누리교회 신앙공동체의 유산도 거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찾아온 많은 성도들도 거저 받았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교회이다.

140년 전, 조선 복음 선교의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세계 모든 나라와 연결된 관문도시인 이곳 영종도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특별한 사명과 비전이 있음을 믿는다.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새로운 선교 자원을 일으키며, 열방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다. 또한 영종 지역사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먼저 세워진 지역의 100여 개 교회들과 함께 이 땅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헌신하려고 한다.

영종온누리교회 예배당 전면은 38년 동안 북극해에서 쇄빙선과 과학탐사선으로 항해해 오던 선박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다. ‘하늘을 향한 항해(Sailing to heaven)’를 이어가라는 묵직한 메시지인 것 같다. 영종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의 승조원으로 승선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영종온누리교회가 세속화의 파도와 인본주의의 맞바람을 헤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항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운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일시: 5월 18일~19일(1박2일)
장소: 강원도 태백, 삼척, 동해 등
신청: 아이스쿨
회비: 15만 원
문의: 010-7636-630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예수님이좋아요) 편집 디자인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마감: 5월 12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구약학
접수: 5월 22일~28일 17:00까지
문의: 02-570-7192
*www.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곡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운유흐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벌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김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55-969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동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유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안산 온누리M센터 구수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소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재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재팔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알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올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석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8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충청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위임목사

 위임목사

이재후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미하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승경	김해연	김도숙	김미정
김상규	김성옥	김지숙	김성중
김성겸	김성완	김영배	김요섭
김용민	김승하	김용태	김윤식
김재식	김재승	김정희	김종우
김태원	김종호	김정호	김태문
김종아	김찬국	김창식	김홍주
노규식	노지형	노희태	렴보홍
박명재	박진국	박성근	박영빈
박정식	박준근	박형준	박영남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신승현	송윤동	송재호	신기철
신성근	신원철	신현민	신바라
송동주	송재호	안수필	양성민
양인범	양재진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자	유현복	윤미라
유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호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재현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진	전성진	전 칠	전재표
정성훈	정신익	정승철	정현아
정현식	정희정	제지훈	조동욱
최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훈
최정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지현	최희종	최대식
최귀무라	최영진	하성희	하청원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식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종	신주용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소문자(小字)

◆독사(준선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차양 모회자

하스테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균	김종영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마주마루	박시마	백승현
서영철	서우대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이	스톨츠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정욱진	정요한	제인랑
최정현	허효경	황연식

◆전도사(파트)

고구리	강남구	강남갑
고우리	김포시	관내시
권평화	김기하	김기태
김동규	김동호	김반손
김민수	김승호	김예달
김요셉	김진선	김진화
마사토	김현정	김홍진
박하매	박세연	박성진
박요한	박용아	박윤식
박의력	박여빈	박지나
서해진	안우택	송영호
시은섭	신일범	양현모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유신식	유수현	유종현
윤지성	윤준호	윤창원
이도열	이동춘	이미진
이신해	이소미	이시현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창모	이태호	이한
이휘영	임경미	임도환
장건우	장광식	장영주
정은진	정상원	정성민
조수지	조우현	조은식
최기성	최수환	최인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선	한용태
홍건근	홍희재	홍철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영재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권득한	권영석	권용상
권철준	김경광	김경철
김남식	김남열	김광성
김명훈	김성섭	김석인
김선택	김성목	김성순
김수광	김수영	김수웅

김원	김용성	김	김용	김용배
김원익	김원규	김원	김원준	김원준
김재욱	김재일	김종진	김종성	김강철
김종승	김두중	김준호	김창욱	김종성
김철수	김태경	김현주	김현철	김현철
김형식	나성권	노재한	노홍규	노홍규
류지영	문상진	문창국	문창호	문창호
문희실	문현구	박공	박광	박광
박복래	박상순	박석봉	박성	박성
박석호	박석국	박영태	박영태	박영태
박태성	박우형	배대	배대	배대
박태성	박홍근	배문	배문	배문
박태성	박홍근	배문	배문	배문
서성열	서진호	서천규	서천규	서천규
손한기	손민석	송영범	송영범	송영범
송우신	송영일	송재하	송재하	송재하
신승인	신영철	신우권	신우권	신우권
심상만	심재국	심창	심창	심창
안국영	안성현	안용대	안용대	안용대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주현	양주현
임태원	오성연	유광범	유광범	유광범
유태현	유성연	유성열	유성열	유성열
유재천	유영	윤기훈	윤기훈	윤기훈
유지준	유석우	윤영자	윤영자	윤영자
윤영오	윤현덕	윤형진	윤형진	윤형진
이재현	이경환	이관수	이관수	이관수
이국희	이기중	이갑신	이갑신	이갑신
이도희	이두승	이갑수	이갑수	이갑수
이상기	이상덕	이상숙	이상숙	이상숙
이영세	이영철	이영성	이영성	이영성
이우근	이영태	이창조	이창조	이창조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
이종순	이형남	이철	이철	이철
이현열	이현호	이화영	이화영	이화영
임광순	장광	장양희	장양희	장양희
전규영	전정하	정규자	정규자	정규자
전준영	전정우	정병규	정병규	정병규
정순봉	정영열	정용화	정용화	정용화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정희태	정희태
조성근	조성업	정지하	정지하	정지하
최희원	최창진	최희호	최희호	최희호
주용일	최성진	최춘근	최춘근	최춘근
최영문	최희준	최희준	최희준	최희준
최상근	최진성	최정규	최정규	최정규
최종길	최희준	한복	한복	한복
한규종	한희준	한복	한복	한복
한중호	한창직	한희서	한희서	한희서
한석진	하광수	하희서	하희서	하희서
홍기명	홍대표	홍영식	홍영식	홍영식
홍정표	홍대표	홍영식	홍영식	홍영식
황희서	황재규	황영식	황영식	황영식

강신인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박욱	강기성	고미라	고영주
강복환	고갑선	곽대민	곽희준
구지엽	권순철	권오섭	권오현
권혁이	금세중	김경문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민소	김병세	김병현
김두진	김민소	김병세	김병호
김삼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진
김성균	김성종	김신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원진	김원관
김영소	김영욱	김영록	김영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환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준우	김종호	김지환	김준영
김홍익	김성홍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장석	김정원	김철민
김철수	김해기	김현중	김형경
김형서	김영준	김홍수	김화선
김하수	김영국	김희현	나광욱
나 영	나영국	남명현	남상길
남윤창	남정진	남주인	노경환
노기홍	노하수	라성원	류기범
명영찬	박찬현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승현	박규만	박대호
민태현	박동현	박수진	박규원
박영철	박성규	박승식	박승우
박영환	박승권	박기식	박용익
박일구	박일면	박지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이찬	박해한
박 해	박현규	박해민	박홍선
박찬준	배기영	배상대	배소호
배종진	배정웅	서광재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재	성무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손태용
송기진	송동식	송창환	송호철
신기현	신동진	신두환	신민호
신 선	신재영	신철우	신학철
신한승	신길섭	신현우	심호무
신희돈	신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우	양성철	양원준	양준경
양성호	양현열	오병규	오범규
양소록	양승훈	오승택	오이식
유내훈	유원호	유봉국	유재훈
유상철	유영준	윤석주	윤신우
이경호	이국철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철	이상도	이상울
이성준	이성혁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완	이승민	이순재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태

이재춘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정복	이진주
이태열	이희일	이해달
이훈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창대	임현태
임영열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문식	장선철
정구진	전영수	전한백
정경열	정상기	정석순
정영진	정영기	정영열
정영택	정용국	정영일
정준오	정원만	정성훈
정재복	정진호	정태경
대무성	조대식	조병환
조성수	조대현	조병호
조청구	주성대	전종구
차춘근	최민일	최석민
최상관	최봉태	최관주
최현재	최영수	하상진
하주환	한복기	한상구
한찬원	한왕식	한필규
합일진	허정근	하대행
허복남	허영환	허필우
홍길진	홍성호	홍춘진
홍승우	황병일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 명예장로		
김종수	박용문	박윤조
이승규	이원로	이혁상
장국룡	장병주	장상건
지성환	최창길	홍순직
황승호		
◆ 협동장로		
김승모	김정훈	김 준
남영대	류성광	박자인
박영규	양호성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준현
김기덕	김근주	김병우
김기산	김세일	김병호
김경환	김지현	김영준
김희정	남영창	박해근
박용규	남정우	송성갑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지훈	유은제	오현환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조인환	전병문	임진미
정필화	최미현	정성미
최유선	최지선	최영은
최태경	최호환	최재영
홍홍식		
◆ 반주자		

강영우	강에는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현
김진경	김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영경	김은실
김성민	김지은	김인영	김국경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현희	김현정	김향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나혜설	노보화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신희	박이령	박요원
박유진	박지훈	박수영	배영근
송유빈	신소현	신은미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호준
오주영	유재경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정진	유중광	유지훈
윤정희	윤준수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예은	이애리	이영희
이예나	이슬기	이지원	이재훈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전혜정	전주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정민우	조영혜	채현진
최소희	최영금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의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권원찬	김도균	이경희	문영태
박진용	서재환	이길택	요시하라
나부	전현규	정호성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신지호	하카미타 미키	

◆**주무 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근조	박태영
심상현	정민철	이성권	이정영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강시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복	김영호	김경호	김창식
김형찬	남진숙	노건우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호빈	배성우	박세진	손 담
남미경	신기원	심재현	신영진
양진복	염영기	유운상	유병중
유영순	이성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영은
이영주	이형근	장기아	장재홍
전상진	전진성	전종호	전동성
정철환	조수정	최정석	최성식
최형홍	허 민	홍동욱	홍성진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김요한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경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윤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장병천	장선진
정성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희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Par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주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준중	남 영	백남인
서태식	신홍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만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하근찬	홍규석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주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서현제	송재학	신술문
이후실	유형민	이광표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정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평의회장로 Henry Park Hyun Chang			
◆말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강모민	김달수	김병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진
윤현돈	전태식	임인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연
◆성가사			
고양숙	김성주	김수정	김용희
김지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윤일	박하람	송희경
임지영	이복순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경화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영호	조요섭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호걸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김홍만, 김효림의 아들 김봉상(온누리교회)
김용일, 김충열의 딸 김은(온누리교회)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안순표, 신인숙(열방은혜교회)의 아들
안관식(온누리교회)
장운상, 김용애(온누리교회)의 딸 장문영(온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분야: 식사· 돌봄지원
 내용: 식사, 밑반찬 /인부 확인, 돌봄 정기 지원, 용산구 거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문의: 박민정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원어민 강사 모집
 내용: 서초쉼터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칠 원어민 영어 강사
 분야: 영어회화, 여행영어, 실생활 영어
 문의: 유정선 사회복지사(02-6953-1833)

재정

온누리교회 앱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어 사용하세요.

상답

서핑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말: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4/26(금) 서초A 배승호 성도 모친상 고 최경랑
4/26(금) 서초C 박정희 권사 모친상 고 윤장순
4/27(토) 양재B 홍정의 집사 부친상 고 흥기수
4/27(토) 신원산 문덕규 성도 시모상 고 김선임
4/27(토) 중종로 박장호 성도 모친상, 조차연 성도 시모상
고 강선용
4/27(토) 서빙고 흥선숙 성도 시모상 고 윤흥점
4/27(토) 양현 이민우 권사 모친상, 박찬중 집사 빙모상
고 김영순
4/28(주일) 브릿지33 조영채 성도 부친상 고 조동선
4/30(화) 서초B 정수현 집사 모친상 고 안보일
5/1(수) 한강 최충현 집사 빙부상 고 최철현
5/1(수) 은누리M미션 이경숙 선교사 부군상 고 최승준
5/1(수) 이촌 함이림 성도 부친상 고 함태용
5/2(목) 중종로 홍진섭 집사 빙부상 고 양윤중
5/2(목) 가정사역 최우진 성도 부친상, 배은영 성도 시모상
고 최상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크리스천 슈퍼맘

육아, 요리, 청소, 교육, 사역, 직장까지
전쟁 같은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슈퍼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 첫 공개 ◆ **풍당** 5월 3일(금) **CGN** 5월 6일(월) 10시 20분

